

# ‘제2 전남학숙’ 화정동에 짓는다

전남 농촌출신으로 광주 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제2의 전남학숙’이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 들어선다.

전남도는 농림부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갈수록 형편이 어려워지고 있는 농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농촌대학생 기숙사를 세우기로 했다. 전남도와 정부가 FTA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대학생 기숙사 건립비가 내년 농림부 예산안으로 확정됨에 따라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120억 투입 내년 착공 6층규모 300여명 수용

광주시 서구 화정동 전남도로관 리사업소 이전 부지 9천916㎡(3천평)에 짓는 기숙사는 6층 규모로 모두 160여개의 방을 갖춰 농촌출신 대학생 300여명의 보금자리가 역할을 하게 된다. 전체 공사비는 120억원이며 전남도비와 국비가 절반씩 투입된다.

농촌대학생 기숙사는 2009년 완공 예정이며 올해 고교 1학년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10년부터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앞서 화순군 화순읍 영남리에 전남 농촌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전남학숙이 지난 1999년 문을 열어 현재 3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광주 농촌대학생 기숙사가 완공되면 개방압력에 따라 경쟁력 저하로 고심하고 있는 농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남학숙의 한 달 사용료는 11만원선. 광주 지역 한 달 하숙비가 30만~40만원 선인 것에 비하면 매우 저렴한 수준이다. 따라서 제2의 전남학숙 역할을 하게 될 농촌대학생 기숙사가 완공되면 그만큼 농촌 학부모들의 어깨가 가벼워지게 된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도교 조선통신사 재현

17세기 이후 우리나라와 일본간 문화교류의 첨병 역할을 했던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의 일본 파견 400주년을 기념한 통신사 재현 행렬이 지난달 29일 오후 도교에 도착, 도교 도심지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유치를”

광주문화도시協 주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 육성의 필수 시설인 ‘한국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을 광주에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문화연대와 광주전남개혁연대 등 광주지역 2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주문화도시협의회(상임공동대표 김영기)는 지난 달 30일 성명을 내고 “문화산업을 육성·선도할 전문기관인 한국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설립이 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안

에 포함됐으나 설립 지역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연구 여건 등을 감안해 서울지역 신설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문화중심도시의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광주에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도시협의회는 광주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에 걸맞는 미래형 문화경계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을 선도할 핵심 연구기관, 특히 IT 관련 전문기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초기투자비 238억 이미 회수 호남고속도 통행료 면제해야”

한나라 박재완 의원 제기

호남고속도로 등 초기투자비가 회수된 고속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대폭 줄이거나 면제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지난 달 30일 호남 및 경부고속도로의 초기투자비가 회수됐으며 해당 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호남고속도로의 연도별 통행료 징수액은 2002년 1천268억원, 2003년 1천416억원, 2004년 1천523억원, 2005년 1천535억원, 2006년 1천673억원이지만 유지관리비는 각각 494억원, 572억원, 575억원, 633억원, 673억원으로 이미 투자

비 238억원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도 연도별 통행료 징수액은 2002년 6천7억원, 2003년 6천10억원, 2004년 6천485억원, 2005년 6천477억원, 2006년 6천602억원 등이었다. 같은 기간 유지관리비는 944억원, 1천439억원, 1천114억원, 1천211억원, 1천345억원으로 지난 1980년 총공사비 430억원을 이미 회수했다.

박 의원은 출퇴근이나 물류이동 많은 평일에는 통행료 50% 인하,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추석과 설 명절 연휴에는 통행료를 면제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신정아 후원기업 본격조사

검찰 변·신씨 재소환 ... 성곡미술관 거액 유치 추궁

변양근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신씨가 근무한 성곡미술관을 후원한 기업 관계자들을 10월 1일부터 차례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 기업이 기획예산처 장관·차관,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변 전 실장의 직위를 보고 그와 가까운 사인 신씨를 후원했는지, 후원금의 대가로 기업 규제나 인사 등 구체적인 청탁을 하지 않았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검찰에 따르면 성곡미술관이 대우건설, 산업은행,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포스코 등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은 모두 10억여원에 이른다.

검찰은 신씨가 대기업들을 돌려 후

원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변 전 실장의 이름을 팔아 5억원씩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이 공무원으로서 직무권한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들로부터 뇌물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지만 기업들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공익·인도적 차원에서 성곡미술관을 후원했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검찰은 최근 성곡미술관과 동급인 4~5개 미술관의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기업체의 후원원이 전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따라서 성곡미술관이 차별대우를 받은 게 변 전 실장의 영향력 때문인 것

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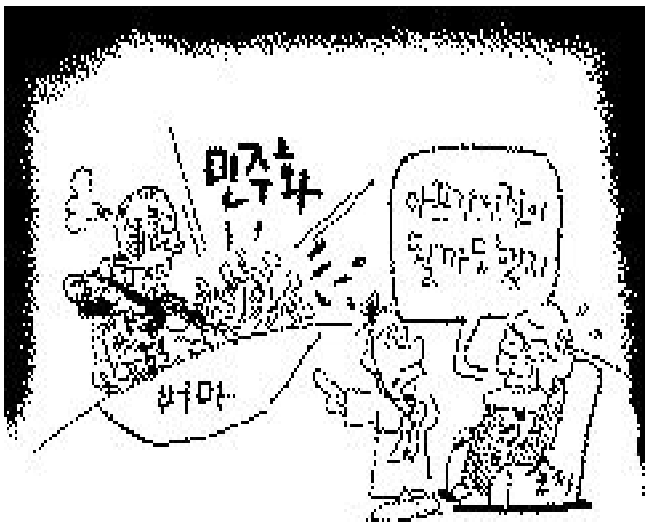
검찰은 이와함께 변 전 실장과 그의 부인이 신도로 있는 과천시 보광사에서 국고가 탈법적으로 지원됐으며 그 뒤에 변 전 실장의 위임이 있다는 정황을 잡고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보광사에 문화재단만 집행될 수 있는 특별교부세 2억원이 다른 용처에 배정됐다는 탈법적인 사실을 확인했으며 과천시 관계자로부터 ‘위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신씨가 기업체 등에 조형물 판매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조

각가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챙겼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률과 미술계 관행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빛의만평

- 김중두



‘만행저지 특사’나 한번 하시지

### 자녀 하루 1~5회 “부모와 문자 통화”

자녀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하루 평균 1~5회씩 부모에게 문자를 보내고 1~3회씩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가 지난 달 29일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한 ‘다문화사회의 모바일과 휴먼커뮤니케이션 연구’라는 주

제의 세미나에서 김은준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강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김 씨가 지난달 대전광역시에서 사는 중·고·대학생 97명과 그들의 부모 79명 등 1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녀의 경우 66%가 하루 1~5회 부모에게 문자를 보내고, 음성 통화는 1~3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정통부 ‘친북사이트’ 삭제 명령

접속 해제 놓고 靑·공안부서 이견 노출

정보통신부가 사회단체·정당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친북 게시물에 대해 삭제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친북계시물들의 원 출처로 알려져 있는 해외 친북사이트에 대한

접속 해제를 놓고 청와대와 공안 부서가 서로 다른 입장을 노출해 정부 내에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달 29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민주노동당, 민주총

등 13개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에 지난 18일 공문을 보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 1천660건을 28일까지 삭제하도록 명령했다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해당 단체를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삭제 명령을 받은 글들의 원 출처로 알려져 있는 해외 친북사이트 등의 개방문제에 대해 청와대는 개방 가능성 검토 입장을 밝힌 반면 공안 부서는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제88회 전국체육대회

광주광역시

www.kwangsports.com